노량해협과 관음포

- ‘이슬다리’와 남해대교, 충무공의 죽음과 관음포 -

초로(草露) 인생이라는 말이 있다. 풀끝의 이슬처럼 생명의 허망함을 뜻한다. 이슬은 밤에 생겼다가 아침에 소멸하기 때문에 덧없는 시간성, 잠시머무르다사라지는 무상(無常)한 존재의식을표상한다. 한편이슬은 옥로(玉露), 감로(甘露)라는말처럼깨끗한물방울에서 유추되는 이미지가 청순, 순결, 더럽혀지지않은진실을 나타내기도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상남도남해군설천면노량리와하동군금남면노량리 사이의 남해대교 밑 바다가 바로 충무공이순신장군의마지막전적지인노량해협(露梁海峽)이다. 그리고그 바다 남쪽으로이충무공 유해가 처음 안치되었던 남해군차면리관음포(觀音浦)가있다.

‘노량(露梁)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슬다리’가 되는데, 이곳 바다 위에 이슬처럼영롱한모습으로걸려있는다리가 바로남해의명물인남해대교이다. 건너는 수로의이름그대로아침이슬이영롱하게 빛나는 모습과 같다. 1973년에준공된 이 다리는길이660m, 유효폭원9.6m의 현수교(懸垂橋)로서하늘 높이 치솟은두 개의 빨간 교탑에 의하여 마치 코끼리의 상아와 같은 형태로 이어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주변경관과어우러져더욱풍치를 자아내는곳이다. 그런데왜이곳을노량-이슬다리라고부르게 되었을까. 이슬처럼 속절없이스러지는우리인생을비유한것이었을까. 혹은이충무공이이곳에서이슬 방울처럼스러질것을내다본이름이었을까. 아니면 깨끗한 이슬처럼 정파에 초연하고 고결하게 살다가 비운(悲運)에 스러진 장군의 운명을 내다본 이름이었을까. 『남해지명사전』(남해군)에는 옛날 남해로 유배되어오는 선비들이나룻배에 부딪히는물방울이마치이슬처럼보였을것이라 하여붙인이름이라고한다.

충무공이 돌아가시자 그 유해를 처음 안치했던곳이바로고현면해안의관음포이다. 관음포라는이름은고려시대의불교와깊은연관이있다. 몽고의침입을당하게되자고려조정은불타의힘에모든희망을걸었다. 그리하여지리산의산벚나무를 베어 섬진강으로 흘려보내고, 이곳 남해바닷가에서3년 간 갯벌에 묻어두었다가그늘에말려서고려대장경을판각하였다. 이곳을‘관음포’라 부르게 된것은이런사연이있었기때문으로보인다.

본래 관음이란 대자대비(大慈大悲)의 상징으로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의 줄임말이다. 관음은소리를 듣는것이아니라본다는 뜻이니, 지혜로써 이 세상을 관조(觀照)함을의미한다.

관음포. 왜적과의23번싸움에모두승리하였던 이충무공이 이곳 노량해협에서 왜적을 격멸하기 위해 선두에서서 북치며 독전하다 적의 총탄을 맞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던 그때의 피어린 정경을 이 바다는 모두 보았을터이니‘관(觀)’이요, 장군의유명(遺命)을 들었으니‘음(音)’이라, 그래서 관음포라 하였던가! 이관음포를 뒷날 이락포(李落浦)로부르게된것은이충무공- 큰별이 이곳에 떨어졌다는 뜻이다. 임진왜란 최후의 해전이 그렇게 끝났을 때, 피아간에수많은목숨들이이곳에서이슬처럼사라졌으니 노량(露梁)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 것 같다. 본래 로(露)는 이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노출(露出)이라하듯이, 이곳에아름다운남해대교가 수려한 자태를드러냈으니‘노출(露)된다리(梁)’라는 이름과 통하게 되었다. 어쩌면 노량이라는 이름은 이 충무공의 죽음과 그 후의 남해대교를 내다본 이름같기도하다.

김기빈
한국땅이름학회부회장